

원합니다.

本議員이 主張하는 向後對策은

서울市 發展의 長期的 眼目에서 볼 때 本 請願書의 住民意見을 적극 收斂하여 地上區間을 地下로 設計變更하여 施工함이 妥當하다고 認합니다.

本 區間 地上에서 地下로 設計變更할 경우 工事費가 增加된다며 經濟的인 問題를 들어 變更 不可能하다는 地下鐵建設本部의 一部 主張이 있으나, 經濟的 問題點 못지 않게 本議員은 環境 및 公害問題가 더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이 現況과 問題點이 있으므로 地域住民의 宿願인 地上區間을 수일 내 地下로 設計變更하여 서울市의 미래지향적인 發展과 더불어 住民宿願이 解決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위하여 交通委員 여러분께서는 現地를 踏査하시고 住民의 意見을 聽取하여 市 民을 위한 地下鐵工事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本 請願은 聖水洞, 紫陽洞民 4,070名이 連帶署名하여 請願하였으며 請願 原本은 住民들이 保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請願說明의 補充資料를 參考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本議員의 請願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柳準向 委員長, 李元局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元局 崔鍾德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約 15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5分 會議中止)

(17時 50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元局 座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 청원개요

○성동구 자양동·성수동 경계에 있는 능동로를 따라 건설되는 지하철7호선 일부구간인 자양역~청담역 공사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근 현대아파트, 양지주택, 신안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소음과 진동 및 건너편 지역을 왕래하기 위하여 우회해야 하는 등 주거생활의 불편을 예상하여

○현 계획된 노선을 지하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2. 검토의견

가. 7호선 노선현황

○지하철7호선은 도봉차량기지를 출발하여 지하로 상계동 동일로와 능동로를 따라와서 기존 2호선 건대역(지상역)과 7호선 건대입구역(지하 10m지점)을 환승토록 하고 다음역인 자양역(지상 15m)부터 지상으로 나와서 계획 중인 청담대교로 한강을 도강하여 청담역(지하 24m)에서부터 다시 지하로 설계되어 있음.

나. 기존 계획된 선로를 지하화할 것

○주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하철건설은 도로를 따라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인근 주민에게 소음과 진동 등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바람직한 공법이나 현재 민원이 발생된 지역의 선로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한강도강을 지하로 해야 할 것임. 현재 한강 하저밑을 통과하는 구간은 5호선 천호동에서 광장동으로 연결하는 곳과 마포에서 여의도를 건너 가는 두곳이 있으며

○한편 지하철7호선 건설계획은 '89년 착공하여 '9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문

제가 되고 있는 7호선 1단계 공사진척도는 8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구간인 여의도 마포구간은 '89년 착공 '95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총 공사기간은 6년. 천호구간은 '89년 착공 '94년 완공예정으로 5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한강 지하화는 공사기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난공사업.

○따라서 7호선이 '97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현상태에서 청담대교를 따라서 건너가게 될 선로를 지하화할 경우 최소한 5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99년이나 2000년에 개통될 수가 있어 전체 지하철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또한, 한강 지하화는 현재 공사가 80% 가까이 진행된 건대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역 사이의 터널 및 정거장이 재시공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또한 예산측면에서 볼 때 이미 서울에서 동부도시고속도로의 한강통과 구간을 위하여 청담대교가 계획되어 있고 청담대교 밑을 지하철이 지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철교 건설이나 하저밑을 통과하기 위한 터널을 만드는 등 추가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다. 민원 해결방안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은 현대아파트는 10m 거리에서 지상 23m 지점으로 통과, 양지주택은 10.6m 거리에서 5.5m 지상으로, 신안빌라는 8m 거리에서 8.5m 지상으로 통과하므로 기존 지하철 시공기술로 볼 때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예상됨. 예로 지하철 4호선 상계역사는 벽산아파트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결과 뒤늦게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문제가 야기된 곳도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공법으로 환경기준치인 65dB는 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

도록 과학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상으로 지하철이 지나감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로를 사이에 두고 두지역을 연결할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元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으로부터 本 請願에 대한 執行部側 意見を 듣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地下鐵 7號線 建大入口 淸潭驛 區間 地下化 建設要求 請願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

지하철7호선 건대입구~청담역구간 지하화 건설요구 청원검토

《청원내용》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구간은 도봉에서 상계, 중곡을 거쳐 지하철 2호선을 지하로 통과한 후 성동구 자양동, 성수동지역에서 한강교량 통과를 위하여 지상으로 건설됨에 따라

—지하철의 지상건설에 따른 일부 횡단보도의 폐쇄, 생활권의 분리 등 주민통행의 불편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지하철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청담대교 접속 고가차도가 동시에 건설되나 6차선의 고속도로가 본지역에서 2차선으로 설계되어 차량정체로 인한 소음, 매연의 피해와 교육환경에 저해가 예상되므로

○건대입구~청담역구간을 지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